법주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

보살계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고 실천해 나가는 계입니다.
을사년 윤년에 거룩하게 봉행되는 보살계에 동참하시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한 불자가 되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걷는 진정한 불자로서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신도님들 수희 공참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69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 **보살계 동참보시** : 1인 **3**만원
- **보살계 동참계좌** : 농협 351-1290-8099-93 법주사
- **접수안내**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신청)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5 | 10

의상 대사의 천공天供



원효 대사가 설악산 영혈사에 주석하고 있을 무렵 의상 대사는
낙산사 홍련암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하루는 의상 스님이 원효 스님를 홍련암으로 초대했다.
한낮이 되어도 점심 공양이 나오지 않았다.
의상이 말하길 "이곳 홍련암에는 식수가 나오지 않으므로 밥을 짓지 못하고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 주는 천공을 받아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어도 천공이 내려오지 않았다. 원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록 도가 높더라도 인간 세상에서 천공을 받아먹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암자 뒤쪽 바위를 뚫어 샘물이 솟아나게 했다.
그 샘은 설악산 영혈사 물줄기에서 끌어낸 것이었다.
원효가 떠나자 그때야 천녀가 천공을 들고 나타났다.
의상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천녀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녀는 조금 전 원효 대사가
있을 적에는 화엄신장들이 주위를 삼엄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다가
원효 대사가 떠나자 화엄신장들도 따라 떠났기에 이제야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5 10 | 통권 405호



2 **벽화이야기** 의상대사의 천공
4 **이달의 법문** 보살계 법회에 동참한 불자님들을 찬탄하며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7 **주지스님 법문** 가을 도량에 피어난 국화의 향연과 불법의 향기 정덕 스님
10 **수행여화** 옆에 두고 볼라치면 꽃 아닌 게 없다 현진 스님
12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 – 연기법의 의설 – 아홉 번째 고광 스님
15 **걸망메고** 삽질해서 얻는 것 무진 스님
17 **법주사 템플스테이**
18 **법주사 소식 / 법주사 행사일정**
19 **추석합동차례안내 / 법주사 공양미**
20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생일불공**
21 **승려복지 후원 안내**
22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23 **법주사 신행단체 신규회원 모집안내**
24 **법주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9(단기4358)년 10월호 통권 405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보살계 법회에 동참한 불자님들을 찬탄하며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속리산의 가을빛이 도량을 물들이는 이 계절에 법주사에서는 거룩한 보살대계 법회가 봉행됩니다.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의 원력과 신심을 깊이 찬탄하며,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가정과 일상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가에서는 계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계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불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나침반이며, 청정한 삶을 보장하는 뿌리입니다.
그 가운데 보살계는 대승불자의 길을 걷고자 서원하는 가장 높은 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해탈만을 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보살계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욕망과 집착이 이끄는 선택은 괴로움으로 이어지지만
보살계의 정신에 따른 선택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로 이어집니다.
계는 올바른 선택을 가능케 하는 이정표로서,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중생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큰 서원에 근거한 계율이며, 부처님의 자비심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보살계의 정신은 자타불이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바로 아는 데서 자비심이 생겨나며,
나의 행복이 곧 남의 행복과 이어져 있음을 체득할 때 보살행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보살계는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인가"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원력이 됩니다.
보살계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욕망과 집착이 이끄는 선택은 괴로움으로 이어지지만,
보살계의 정신에 따른 선택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로 이어집니다.
계는 올바른 선택을 가능케 하는 이정표로서,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중생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으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는 시대 속에서 보살의 원력과 자비는 더욱 필요합니다.
계를 지닌다는 것은 고통 많은 세상에 한 줄기 등불이 되겠다는 서원이며,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실천입니다.
또한 보살계는 불퇴전의 힘을 길러 줍니다. 수행은 늘 오르내림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살계는 다시 부처님의 길로 돌려세우는 힘을 지닙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성불하겠다는 원력은 결코 퇴보하지 않는 힘이 되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경전에서는 보살계를 모든 계율의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살계 한 가지를 지니면
다른 모든 계율이 그 속에 포함된다고 설하였으니, 그것이 보살계의 위대함입니다.
보살계를 지니는 이익은 크고도 깊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인연이 청정해집니다. 계를 지니는 사람은 청정한 향기를 풍기게 되니,
가족과 이웃, 공동체는 그 기운을 따라 화목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보살계는 자비행을 생활화하게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를 돕고,
말과 행동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불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보살계의 궁극적 이익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 그대로를 따르겠다는 서약이니, 수행과 자비행을 거듭할수록
불성이 드러나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보살계를 지니는 이는 단순히 의식에서 서원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실천 속에서만 그 참뜻이 드러납니다.
계율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마음에 계율을 새기고 자비심을 행동으로 옮겨 하루하루를 부처님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자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럴수록 보살계의 정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한 걸음 양보하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먼저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도의 길입니다.
이러한 삶은 곧 세상을 밝히는 연등이 됩니다.
보살대계 법회는 한 사람의 서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원력이 모여
사부대중의 원력이 되고, 한 사찰의 원력이 모여 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힘으로 확장됩니다.
법주사의 이 도량에서 맺은 서원은 속리산을 넘어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할 것입니다.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님들의 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고, 사회에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며,
마침내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을 도량에 피어난 국화의 향연과 불법의 향기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속리산의 하늘이 더욱 높아지고 맑아지는 10월,
법주사 도량은 가을의 빛으로
장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맞추어
법주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을 북돋우고,
국민 모두가 불법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와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향유하고,
불자님들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국민 전체에게
그 공덕을 회향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을 법주사에서는
'법주사 가을 국화향연'을 열어 도량을
아름다운 국화로 장엄하였습니다.
국화는 청정한 기운을 품고 있는 꽃으로,
그 향기는 가을의 정취와 더불어 법향을
상징합니다. 부처님 도량을 국화로 장엄하는 것은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니라,
국화 한 송이 한 송이에 담긴 공덕의 마음을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서원입니다.
이 장엄한 도량 속에서 불자님들은
기도와 참선을 이어가고,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을 더욱 깊이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화향연과 더불어 법주사에서는

보살대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보살계는 대승불자의 삶을 다짐하는 서원으로,
모든 중생과 더불어 성불하겠다는 자비심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국화로 장엄된 도량에서
보살계를 받는 것은, 꽃이 피어나듯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의 마음 속에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법주사는 이번 보살대계 법회를 통해 불자님들이
일상의 신행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인연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을 도량에는 백미백락百味百樂과
산사음식 축제도 열립니다. 불교의 음식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수행의 일환입니다.





백미백락은 다양한 음식을 통해 불교적 지혜와
자비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이며, 산사의 음식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청정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불자님들과 국민들께서
불교의 음식문화에 담긴 수행적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에서의 식생활 또한 청정하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주사는 또한 사생대회를 열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법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속리산의 자연과 법주사의 전통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젊은 세대가 불교적 가치를
예술로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문화활동을 넘어, 불교가 미래 세대의
삶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포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축제와 법회는 단순히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불자님들과 국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법향을 회향하기 위한 발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주사는 언제나 불교의
가르침을 도량 안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 향기를 세상 속에 퍼뜨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화의 향기가
속리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듯,
법주사의 법향도 널리 회향되기를 발원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축제의 자리에
동참함으로써 신심을 더욱 깊이
다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주사 도량을 찾아 국화의 향기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법주사의 축제와 법회는
바로 이러한 만남과 인연을 가능케 하는 방편이요,
불법을 생활 속에 심어가는 원력입니다.
법주사는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불자님들과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가을 국화향연과 보살대계, 백미백락과
산사음식 축제, 그리고 사생대회는
모두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모든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불자님들의
신심과 동참 덕분입니다. 그 공덕이 불자님들의
가정과 사회에 두루 회향되기를 발원합니다.
속리산의 법주사는 앞으로도 도량을 찾는
모든 이들이 법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신행생활에 힘이 되는 축제와 불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기도와 정진이
이어지고, 국민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가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가을 국화가 만발한 도량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불자님들의 신행이
더욱 원만해지고, 국민들의 마음에도 법향이
그윽히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옆에 두고 볼라치면 꽃 아닌 게 없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며칠 전에 옥잠화가 무리 지어 핀 것을 보았다.
예부터 옥잠화가 피기 시작하면 가을이
다가온다는 예고라 했다. 그러고 보니 찜통 같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어제 꽃시장에 들렀다가 국화를
구해 와서 심었다. 이제는 바야흐로 국화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높은 하늘과 맑은 바람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가 없다면
어땠을까. 늘 변화하기에 그 어떤 도전이나
성장도 가능한 것이다. 고정되거나 정지되어 있다면
이내 그 풍경에 질리고 만다. 그러므로 순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삶의 생기이며 활력이다.
그리고 가을 공간은 비어 있어야 좋다.
그래서 꽃이 진 곳은 미련 없이 잘라내고
그곳을 텅 비워 놓는다. 오전 내내 비비추를
잘라내고 풀 뽑는 일로 시간을 다 보냈다.
그 옆에는 구절초가 벌써 자신의 때를 만나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겹벚나무의 죽은 가지를
쳐내고 웃자란 잔가지들도 잘라 주었다.
가을을 뭐니 뭐니해도 정갈한 공간이 강조되어야
더 넉넉하고 풍요롭다
아침에 강아지풀을 자르다가 어제 지인이
"바람이 흔들리는 강아지풀이 예뻐요"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골치 아파 수시로 잘라내고 있는데
그이는 매번 예쁘게 본 것이다.
하긴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천리포수목원에 갔더니 '옆에 두고 볼라치면
꽃 아닌 게 없고, 뽑아 없앨라치면
풀 아닌 게 없다'는 글귀가 있더라.
가까이 두고 싶으면 풀꽃도 다정하겠으나
내치고 싶으면 그 어떤 풀이라도 밉고 징글징글하
다.
부추도 그냥 두었더니 꽃이 피어 오가는 사람마다
곱다고 한마디씩 했다.
그러나 나는 씨를 날리기 전에 모조리 쳐 냈다.
저 풀꽃들이 씨를 날리면 얼마나 내년에는
얼마나 무성할까...하는 생각에 서둘러
베어내게 된다. 정원지지의 눈에는
그저 우리 영역에 들어온 잡초일 뿐이다.
아마 사람 사이도 그럴 것이다.
이쁘게 보면 무엇이든 사랑스럽지만,
밉게 보자면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
상대방이 싫거나 미울 땐 심지어 애교도 짜증스럽
다.
그렇지만 마음에 들면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호의적이다. 오죽했음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속담이 생겼을까.
문제는 우리 삶의 정원에서 늘 피하고 싶은
대상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풀 뽑듯 단절할 수도 없는 일이니
나를 돌아보고 하심하게 하는 인연으로 여길 것.
올여름 내내 깎고, 자르고, 뽑는 일을 반복했다.
풀과 싸움하다 보니 여름이 다 지나갔다.
정말 여름 계절엔 잠깐이라도 정원 일에
소홀하면 대번에 표시가 난다.
온갖 풀이 점령하여 단정한 정원이 엉망이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매일 매일 땀 흘리며
도량을 가꾸었다. 하루는 잔디 마당의 낙엽을
줍고 있는데 서너 명의 남자 손님들이 방문하여
"여기는 매일 밤 '로봇 기계'가 잔디를
깎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하는 대화를 엿들었다.
정갈하게 잘 정돈된 마당을 보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했다. 하긴 기계가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결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일주일마다 웃자란 잔디를 다듬고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외진 구석은 예초기로
마무리해 주니까 그 어느 곳이든 손길이
느껴질 것이다. 올해부터는 디딤돌 경계로 잔디가
넘어오는 게 싫어서 그 주변에 풀 악을 쳐주었더니
더 질서 있고 깔끔하다. 손이 기계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잔디나 풀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매일 손길이 가지 않고서야
일정한 표정의 정원을 유지할 수 없다.
손님들의 대화 한마디는 내 손길이
평가받는 것 같아 기분 좋았던 말.

살아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빗속을 걷고 작약꽃을 바라봅니다.

김경미 시인이 쓴 〈취급이라면〉시의 일부다.
인생이 건강하고 삶이 신난다는 것은 풀을 메고
꽃을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꾸었으나
꽃이 곁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작업을 통해 나 스스로
위로받는 일이다. 여러분들 곁에는 지금,
어떤 꽃이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연기법緣起法의 의설義說 – 아홉 번째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을사년 하안거는 중간에 윤달이 보너스처럼 한 달 더 있어서인지, 유난히도 더 덥게 느껴진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백중과 생전예수재를 49일 동안 원만하게 잘 봉행하여 아름답게 회향했습니다.

필자는 노전爐殿이 소임인지라 괘종시계의 추처럼 정확히 그 시간에 법당에 출입했는데, 어느 날 문득 '참 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인도 녹야원 주지 지훈스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무 생각 없이 안부를 물었는데, 기본 50도를 찍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숨만 쉬어도 덥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스님은 부처님 고행상처럼 바짝 마른 분이라 좀처럼 덥다고 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숨만 쉬어도 덥다'는 스님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필자는 온 세상이 시원해졌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법주사가 갑자기 시원해질 리는 없지만, 화탕지옥과 같은 인도 소식 한마디에 온 세상이 그렇게 청량하고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자살을 결심하지만,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가치 있습니다. 원래부터 세상이 힘들다거나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지어놓고 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는 세상에 문제가 있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문제는 그런 세상이 아예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보이고 들린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정말로 나와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도 내려놓을 수 없어 괴로울 뿐입니다.

각설하고 연기법의 의설 아홉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법설의설경'에서 갈애渴愛의 의설義說을 경전에선 어떻게 표현했는지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緣受愛者 彼云何爲愛? 謂三愛 欲愛 色愛 無色愛.

수를 연한 게 갈애渴愛라는 자는 무엇이 갈애가 된다고 일러주는가? 세 가지 갈애三愛를 이르면서, 욕애欲愛, 색애色愛, 무색애無色愛라고 한다.

갈애渴愛는 범어로 tṛṣṇā인데, 글자대로 '목마른 사람'이란 뜻으로, 강렬한 갈망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대상을 향한 집요한 집착이 바로 갈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애에는 욕애欲愛, 색애色愛, 무유애無有愛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1. 욕애(欲愛 kāma-tṛṣṇā):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로, 오감(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대한 집착.

2. 색애(色愛 bhava-tṛṣṇā): 존재에 대한 갈애로, 계속해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싶은 욕망과 집착.

3. 무유애(無有愛 vibhava-tṛṣṇā): 존재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대한 집착.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느낌(受)과 얽혀서(緣) 드러나는 게 바로 '갈애渴愛'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세 가지 외도의 갈애와 부처님의 갈애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아自我의 유무有無입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나 비존재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애의 대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12연기緣起'에는 갈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뿐, 무엇이 무엇을 갈애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識과 명색名色 그리고 육입六入이라는 사건이

서로 얽혀서 접촉(觸)이란 사건을 만들어 내면 느낌(受)이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느낌이 발생할 때 '대상 이미지(想)'와 '대상의 헤아림(思)'의 사건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대상을 어떤 존재로 확정하고픈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망의 사건'이 바로 '갈애'입니다.

갓난아기는 나와 세상에 대한 확실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눈앞에서 계속 '엄마'를 가르치면 어느 순간 엄마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엄마라는 인식이 일어나려면 먼저 '눈앞의 대상'과 '엄마라는 말'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구별하는 '느낌(受), 이미지(想), 헤아림(思)'이 자주 반복되면서 대상과 일치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느낌, 이미지, 헤아림'이 그 '이름의 존재(名色)'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갈애渴愛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도가 바라보는 갈애(義說)'와 '부처님이 설명한 갈애(法說)'가 서로 다른 것임을 알아야만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설과 의설의 구분은 불경 이해의 첩경이며, 그 중요성은 백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디가 니까야(Dīgha Nikāya)'의 '대열반경(Mahā parinibbāna Sutta)'에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Attadīpā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 saraṇā. Dhammadīpā viharatha,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라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설과 의설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자아)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라지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라." 이 내용은 논문 한 편을 쓸 정도의 양이라 간단히 설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설과 의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앞의 해석보다 뒤의 해석이 옳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법설과 의설을 올바르게 이해만 해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문장까지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장에 해당하는 한역 경전 〈장아함의 유행경〉에는 "세존께서는 존재로 생각하는 비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땅히 자신에게 세차게 타오르겠지만 법에 대하여 세차게 타올라야 하고, 마땅히 자신에게 귀의하겠지만 법에 대하여 귀의하되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世尊告諸比丘 汝等當自熾燃 熾燃於法 勿他熾燃 當自歸依 歸依於法 勿他歸依)"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서 법설과 의설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경전을 통째로 외운다고 하더라도 까막눈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경전의 빽빽한 진리
중생이 어리석어
까만 콩인 줄 알고
맛나게 주워 먹었네.

가을 새벽 빗소리 들으며 법주사 응향각에서.

걸망메고

삽질해서 얻는 것

무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나무아미타불
어느 날 한 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삽질'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당장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탐구, 여행,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것 등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한 조각의 경험으로
남아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영상 속에서 "내가 방황한 모든 곳이
내 땅이더라"라는 댓글 하나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방황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결국은 나의 길이 된다는 말,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精進과 인연因緣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연 따라 겪는 일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 삶을 길러내는 씨앗이 되고,
불법을 향한 발걸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정진은 팔정도의 한 갈래로,
게으름과 나태를 극복하고 꾸준히 바른 길을



걸어가는 수행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정진은 단순히 수행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진을 실천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 애쓰고,
학생은 배움에 몰두하며, 농부는 논밭을 일구고,
직장인은 맡은 일을 다해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갈고닦고,
인내와 끈기를 배우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수행이자 불법을 실현하는 길이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방식으로 진심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사소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으로 보면,
그 모든 몰두와 경험은 반드시 의미를 남기고,
자신을 단련시키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헛된 삽질은 없다"는 말은
곧 "모든 인연은 헛되지 않다"는 불법의 진리를
다시 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라 하면 가사와 장삼을 걸치고
법당에 앉아 명상하거나 염불하는 것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조주선사와 임제선사의
가르침이 그러하듯, 수행은 결코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밥을 짓는 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 가정을 돌보는 일상조차도 마음을 다해
몰두하고 성찰한다면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세상 어느 자리든 그 속에서 마음을 깨우고
자신을 비추는 순간, 바로 그곳이 도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티끌 속에도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행의 자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자리, 하찮아 보이는 순간,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경험조차 수행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고난과 좌절이
더 깊은 깨달음의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방황을 겪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으며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 모든 방황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괴로움조차
연기의 그물 속에서 나를 길러낸 도반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業과
인과因果의 이치로 설명합니다.
내가 짓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이렇듯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매 순간을 정진하는 자세입니다.
방황처럼 보이는 길도, 사소한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도, 불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인연의
작용이며 수행의 밭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법당 안에서의 기도와 참선이
그러하듯, 일상의 자리에서 정성 들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쌓여
결국 내 삶의 땅이 되고, 그 길이 나를 길러내는
진리의 길이 됩니다. 불법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 24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마음을 **비우다 …**　　마음을 **채우다 …**



당일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 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 저녁/새벽예불
-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향기명상 (Aromatherapy)
-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 선명상 (1박2일, 2박3일)
- 세조길 걷기 명상
- 수정봉 걷기 명상
- 스님과 차담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9월 6일 백중회향


9월 8일 생전예수제


9월 20일 열암곡 참배

2025. 10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8.10 국군의날	2 11	3 12 개천절	4 13 광명진언기도
5 14	6 추석 15 추석합동차례 보름	7 16 미륵재일 합창단법회	8 한로 17 금오대종사다례 대체공휴일	9 한글날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0 19	11 20
12 21	13 22 다도반법회	14 23	15 24 관음재일	16 25 백미백락과 보살계	17 26	18 27 다라니독송기도 색을 붓다 사생대회 천년의 향기5차
19 28	20 29	21 9.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2 2	23 상강 3 신중기도 회향	24 4	25 5
26 6	27 7 다도반법회	28 8 약사재일	29 9	30 10	31 11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추석합동차례 안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보름달처럼
둥근 마음을 모아 우리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과
여러 인연 영가님들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햇곡식과 과일 진수를 준비하여 정성으로 예를 올려
감사와 은덕을 기리는 추석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속리산 법주사 우리 절에서 스님의 독경소리와 함께
영가님들께 효와 예를 다하는 시간 되시고
모쪼록 우리 신도님들 각 가정 풍요롭고
다복한 명절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차례일정 2025년 **10**월 **6**일 월요일(음 8월 15일 추석날) 대웅전 **10**시
동참보시 한가정 **10**만원

법주사 공양미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정성으로 올리시는 법주사 공양미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음성 미타사 밝은언덕노인요양원 등으로 기부되어 아프고 힘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비나눔의 실천에 함께하신 많은 신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라. 병든 이를 치료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외로운 자를 위로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다.

미륵재일기도 – 10월 일정 :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10월 일정 : 10월 4일 토요일 오후1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기도 – 10월 일정 : 10월 9일 목요일 오전10시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10월 일정 : 10월 18일 토요일 오후1시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10월 일정 : 10월 21일 화요일 오전10시

신중기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시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생일불공 – 생일부터 3일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법회일은 법회준비와 현장접수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법주사)

승려복지 후원 안내

신도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이 스님들께는 큰힘이 됩니다.

■ 승보공양 후원동참자

김규영 김순자 김태홍 김명숙 민혜숙 박근식 박재분 연용덕 최상근 권구영
법주사 관음회 법주사 다도반

덕주사 20,000,000원 마야사 10,000,000원 수정암 10,000,000원

부처님께서는 승보공양을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승가의 위의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께서 수행과 전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법의 수호와
홍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널리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동참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을사년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안내

불기 2569년 을사년 윤년을 맞아
대웅보전 세분의 부처님과 수행정진하시는 스님들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가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는 복전福田의 으뜸이며
여래의 웃옷이며 보살의 큰 옷"이라며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자로서의 표상이였습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자로서 불교를 수호해나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가장 중요한 공양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법佛法과 불성佛性의 상징인 가사를 공양하는 일에 두루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고 현세와 내세에 청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법주사 신행단체 신규회원 모집안내

법주사에서는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신심있는 신행생활을 위해
법주사 각 신행단체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평소 법주사 신도회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기존의 신도님들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사랑하시는
첫걸음 신도님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법주사 합창단
법주사 신도로서 부처님전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 법주사 다도회
법주사에서 신행활동하며 차에 관심이 있고
다도를 배우고 싶으신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 법주사 법주회 / 법주사 보현회 / 법주사 지장회
법주사에서 신행활동과 사찰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시고 싶으신 신도님!
신심과 공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신도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신행단체 가입 및 문의 – 법주사 원주실 : (043)543-4755